



“목장관리만 잘하면 체세포 성적은 저절로 따라와요”

미현목장을 찾아서

세종시 연기면의 인심 좋은 시골 동네에서 미현목장을 운영하는 안만중, 한종희 부부는 송아지 7마리를 사들이고, 바켓 착유를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낙농후계자로 장성한 아들과 함께지만, 아직도 젊었을 때의 열정 그대로를 간직한 채 꼼꼼한 사양관리로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이들 부부의 땀과 열정이 담겨있는 미현목장을 찾아가 보았다.



체세포수를 좌우하는 건 바로, 건강한 목장 환경

미현목장은 총 120두(착유우 54두, 건우 유 10두, 육성우 5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세포 1등급, 유단백 3.2%, 유지방 3.7%, 1일 납유량 1천900kg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안만종 대표는 이렇게 성적이 좋은 이유 중 하나로 ‘꼼꼼한 목장 관리’를 꼽았다.

“24년 전에는 우유를 바켓에 짜면 우유통

을 찬물이 담긴 고무대야에 담가 식힌 뒤에 납품했습니다. 그때는 유지방에 따라 정산을 해주고 그랬는데, 처음 체세포 검사가 도입됐을 때는 연기군(세종시)에서 체세포 1등급 받는 곳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연기군에서 1등이었고 당시 700 농가가 있었던 연세우유에서는 3등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체세포가 잘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견학 와서 배우겠다고 했지만, 우리도 왜 이렇게 체세포 성적이 좋은 지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꼼꼼하고 깔끔하게 짜는 것 밖에는 없었죠.”

체세포를 낮추기 위해서 미현목장은 체세포 관련 제품을 한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도 항상 1등급을 유지하는 이유는 목장 관리와 투자에 그만큼 공을 들이기 때문.

“다른 농장에서는 체세포 수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체세포를 낮추기 위한 제품을 쓴 적이 없고, 별도로 체세포 관리를 한 적도 없어요. 체세포 수는 착유 목장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기계를 잘 점검하고, 사람이 꼼꼼하게 착유하는 것, 그리고 개체별로 소를 관찰하고, 영양관리에 신경 쓰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한 체세포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폭설, 그 아픈 경험을 통해 지어진 튼튼한 축사

미현목장은 2004년 연기군에 찾아온 폭설로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다. 60cm가 넘게 눈이 내려 연기군의 일반국도가 마비될 정도였다. 그때 쌓인 눈으로 목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목장의 미래도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젖소 피해는 6마리의 소가 골절된 것이 전부였고, 연기군이 재난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보조를 통해 축사를 다시 지을 수 있었다. 한종희 씨는 그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캄캄하단다.

“쌓인 눈을 조금이라도 털어 내겠다고 남편은 지붕에 올라가 있었고,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축사를 들락거렸는데 제가 거기서 나오자마자 5초 만에 축사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소가 다 죽은 줄 알고 낙담했는데, 소도 살았더군요. 털 무너진 쪽에 소가 몰려 있었어요. 당시 폭설로 80% 농가들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소도 죽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축사를 다시 지을 때는 굵은 파이프를 사용하고 보강 작업을 철저히 해서 더 튼튼하게 지었죠. 그래도 아직 겨울에 눈만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비타에너지 사용하고부터 전위증상 없어져

한편, 미현목장은 간 기능 개선에 좋은 비타에너지를 6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 1년 365일 매일 급이해 왔기 때문에 이젠 없으면 불안할 정도. 안만종 대표는 유방염에 걸렸거나 산후회복 등 소가 아플 때 비타에너지를 급이하면 그 효과를 단번에 알 수



미현농장 안만종 목장주는 목장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비타에너지를 꾸준히
먹인 결과 소들이
모두 건강해
목장관리에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있으며, 꾸준히 사용하면 소의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타에너지를 꾸준히 먹이다 보니 우리 농장에서는 전위수술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송아지를 바로 낳았거나, 낳았던 경산우 중 유량이 많은 젖소에서 나타나는 케토시스에도 좋습니다. 간 기능도 개선되다 보니 소의 털에서 윤기가 흐르죠.”

아들과 함께 힘닿는 데까지 목장운영 할 것

미현목장의 안만중, 한종희 부부는 목장을 운영하며 시동생 3명의 학업 뒷바라지에 2명의 자식까지 키워내며 힘들게 목장을 이끌어 왔다. 가족들은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즐기시

라’면서 젖소 한 마리씩 팔아 여행을 다니라고 말한다.

‘그 말 한 마디가 고맙다’며 두 부부는 최근 헬퍼와 아들의 도움을 받아 여가활동과 여행을 즐기려고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목장에 대한 열정은 버리지 못한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니 단번에 “열심히 하는 거죠. 뭐!”라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안만중 대표. 세종시가 개발되어 더는 목장운영을 못하게 되지 않는 이상, 아들과 함께 힘닿는 데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한다. 착유와 젖소 관리를 담당하는 두 부부, 세심하게 젖소를 살피고 사료를 급이하는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미현목장 사람들은 ‘사람도 소도 즐겁고 편안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